e푸른성남

제152호 2008년 2월 25일

비전성남

Vision Seongnam

발행처 성남시 | **편집처** 공보담당관실 | **주소** 우)461-700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번지(태평2동 3309번지) | **전화** 729-2075~6 | **팩스** 729-2089 | **홈페이지** www.cans21.net

02 시정포커스 _ 탄천변 도로 개통

03 미래형첨단도시 e푸른성남 _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개관

08~09 기획특집 _ 기지개 켜는 문화 공작소, 성남

12 신지식라이프 _ 기획연재 공공디자인(2)

16 문화공감 _ 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봄노래 잔치마당'

정월에 담근 장맛이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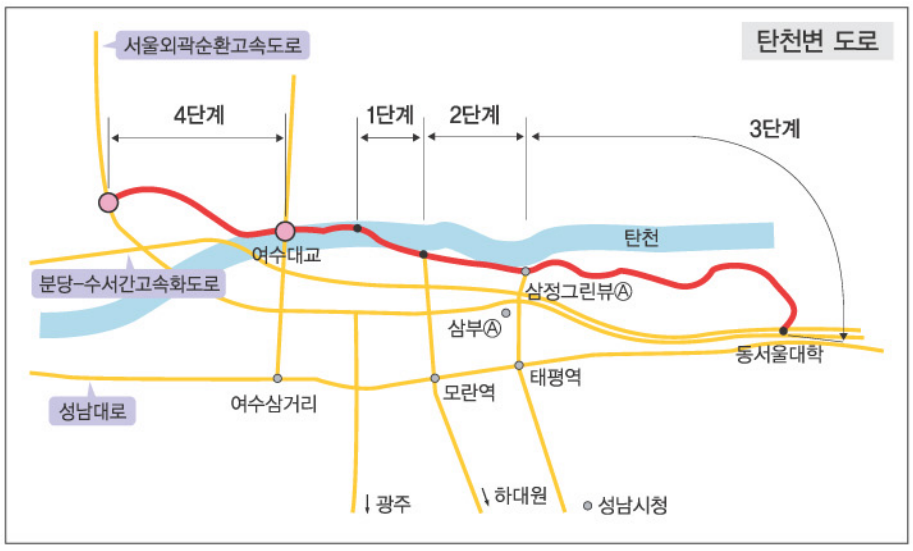
추위가 풀리지 않은 정월에 장을 담가야 가장 맛있다고 한다. 성남시 농업기술센터는 2월 22일 장 문화반을 개강한 데 이어 26일(화) 오전 10시 전통 장 담그기 공개강좌를 연다. 사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장 담그기를 교육받고 또 가르치며 오랜 세월 장을 담가온 전문가 허숙경 여성단체생활개선회 前 회장.

〈관련 기사 10면 피플 & 피플〉

사진 · 편집실 최선일

수진동~태평동 '탄천변 도로' 개통

완공 2년만에 2단계 구간 통행 합의



경기 성남시와 서울 송파구를 잇는 왕복 4차로의 '탄천변 도로'가 완공 2년여 만인 1월 말 개통됐다.

이 도로는 2005년 10월 완공됐으나 일부 구간이 근처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공군이 반발해 2년여 동안 폐쇄됐다.

이번에 개통될 구간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과 태평동을 잇는 탄천변 도로 2단계(1.1㎞) 구간이다. 전체 구간 중 270m 가량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1구역(300m 이내)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군이 도로 개설에 반대한 것.

성남시와 공군은 연말에 판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될 경우 교통체증이 우려되자 이 도로를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군용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매립형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탄천변 도로의 1단계(2002년 개통)와 이번 2단계에 이어 나머지 3·4단계 구간이 연내에 모두 개통되면 판교와 분당 지역은 물론 경기 남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공군과 함께 우회노선 개설을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로를 완전 개통하기로 공군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도로과 도로시설팀 729-3604

성남 탄천변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성남시 수정구는 성남 탄천변 도로의 개통에 따라 1월 24일 이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시간 차를 옮기지 않을 때는 견인조치된다.

탄천변 도로는 그동안 2005년 10월 개통과 동시에 폐쇄된 뒤, 대형차량과 승용차량 등이 주차돼 민원을 초래했었다.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 729-5440

사진으로 읽는 정월 대보름맞이 축제

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분당구청 앞 문화의거리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7회 정월 대보름맞이 축제 장면들.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①떡메치기, ②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연날리기', ③팽이치기, ④제기차기, ⑤박터트리기 등 시민참여행사. 100만 시민 모두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자리다.

성남문화원 사무국 756-1082

제89주년 3·1절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개최

제89주년 3·1절을 맞아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공원(분당 율동공원 내)에서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이 개최된다.

성남문화원이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시지회의 '오리뜰 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성남 3·1운동 약사보고',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성남시장·시의장 경축사가 진행된다.

또 추모시 '만세터에 서서' 낭송과 추모공연 '아! 유관순', 3·1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이 이어진다.

성남문화원은 한백봉·한순희·남태희 선생의 주도하에 주민 3천여명이 천지를 진동할 만큼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던 분당구 율동에 역사적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탑을 제막했다.

성남문화원 756-1082

오는 3월 1일은 제89주년 3·1절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해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게양일시 : 2008.3.1(토) 7:00~18:00
-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2008.2.29 ~ 3.1

※ 각 가정에서는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으로 태극기를 3·1절 전날부터 내리지 않고 계속 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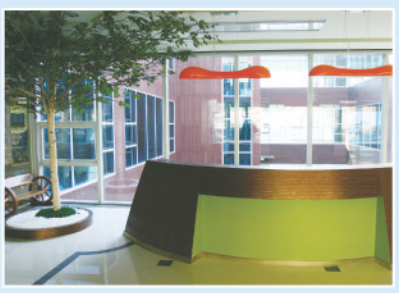
총무과 총무팀 729-2183

국내 최대 규모 분당노인종합복지관 3월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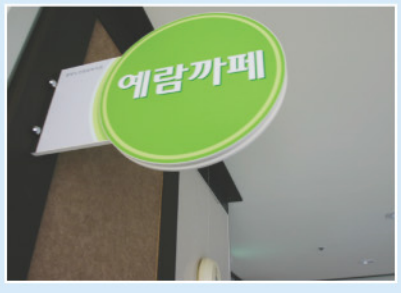
주간 · 단기보호센터 등 갖춰… 고품격 서비스로 최고의 감동을!

탄천 개울가 숲속에서 건너편 아파트와 도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노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어 좋은 곳,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회원모집(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진2장)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지역주민
〈사진 오른쪽〉 상황실 시스템을 설명하는 최영대 관장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내외부 모습



분당구 정자동 주택공원 내 산자락에 지하2층 지상3층(부지 2,858㎡, 연면적 9,318㎡)의 국내 최대규모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돼 3월 21일 개관을 앞두고 2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1개월 동안 프로그램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 오픈 강좌에 들어갔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사회교육 및 여가프로그램을 비롯해 노인정보화사업, 각종 상담, 주간보호센터(20명), 단기보호센터(20명),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영화감상실, 현대식 보건 · 편의시설, 카페까지 마련돼 있어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노인복지 서비스가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뤄진다.

햇살방, 은빛방, 누리방, 늘푸른방, 옛고을터(장기 · 바둑), 새힘터(사회체육실), 다솜터(식당180석), 어울림터(노래방), 아름터(이 · 미용실) 등 이름도 각별하다.

늦어도 5월 안에는 정자역에서 복지관까지 셔틀 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며, 특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15개 노인정을 방문해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경로당 임원을 위한 리더 교육도 함께하게 된다.

마침 프로그램을 신청하러 온 상록마을 우성아파트 주광자(67) 어르신은 기공식 때부터 탄천 운동을 다니며 많이 기다렸다면서 신청서를 쓰셨다.

성남시와 관리협약을 체결한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의 최영대(39 · 사회복지사) 관장을 비롯해 40명의 직원들은 "고품격 서비스로 감동을 드리는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 각계각층의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400석 규모의 강당에 최첨단 음향 시설을 갖추어 토요일마다 가족과 어르신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영화를 상영하는 등 차별화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니 기대할 만하다.

분당노인종합복지관 785-9200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C·l·e·a·n·성·남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악취 Zero

성남 하수처리장 탈취공사 완료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의 악취구간이 14년 만에 사라진다. 악취의 주범으로 꼽혀온 인근 하수처리장의 탈취공사가 끝났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수정구 복정동 성남하수처리장의 악취제거를 위해 2005년 4월부터 78억여원을 들여 지붕덮개식 탈취 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침전지에는 덮개가 설치됐고, 별도 관로를 통해 악취를 모은 뒤 미생물을 이용한 탈취작업을 거친 공기만 대기 중에 나온다.

따라서 공사 전 침전지 주변의 복합악취(기준치 500㎎/ℓ)는 1,761㎎/ℓ이었으나 현재는 20.8㎎/ℓ으로 줄었고, 고속화도로에서의 측정치는 5.5㎎/ℓ인 것으로 조사돼 사실상 악취가 거의 사라졌다.

성남하수처리장은 수정 · 중원구 일대 구시가지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1994년 가동에 들어간 제1처리장과 분당 신시가지 조성으로 추가 건설된 제2처리장으로 구분돼 현재 하루 평균 42만5천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한다.

그동안 인근 주민 및 분당~수서간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악취로 많은 불편을 느껴왔다. 앞으로 2010년 말부터는 전혀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깨끗하고 냄새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탈취 보강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수관리과 하수시설팀 729-4181

대기오염 줄이자!

「수정구 Clean-Day」 운영

※ 2008년 월별 Clean-Day
3.3(월) 4.1(화) 5.7(수) 6.5(목)
7.4(금) 8.4(월) 9.2(화) 10.1(수)
11.6(목) 12.5(금)

오는 3월부터 수정구는 매월 1회 전 직원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출퇴근 하는 「수정구 Clean-Day」를 운영한다. 「수정구 Clean-Day」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줄여 맑고 깨끗한 e푸른성남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3월 3일(월)부터 12월까지 월1회 실시된다.

수정구 직원들은 도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 주민불편 해소에도 일조할 방침이며 앞으로 장 · 단점을 보완해 범시민적인 환경행사로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수정구 총무과 총무팀 729-5022

新간판문화 만들자!

도촌지구 불법광고물 없는 특화거리 조성

▲ 도촌지구-정비후

중원구는 품격있는 가로환경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도촌지구 불법광고물 없는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촌지구 광고물 설치 안내창구를 설치, 도촌동 신도시의 지역특성에 맞게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도촌 · 여수지구의 일반적인 표시기준에 따르면 △1개 업소 당 간판의 총수량은 1개 △입체형 가능 △창문이용광고물 · 옥상광고물 · 세로형광고물은 금지 △주변환경 및 타 광고물과 형태 · 크기 · 색상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 현수막 · 입간판 · 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은 설치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시 벌칙 및 행정처분이 따른다. 자세한 문의는 도촌지구 광고물 설치 안내창구에 하면 된다.

중원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729-6472

시/정/알/림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

- 조사목적 : 지역정책 및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자료
- 기준시점 : 2007.12.31 현재
- 본 조 사 : 2008.3.17 ~ 4.9(24일간)
- 조사대상 : 시 관내 소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2006년 기준 약 48,756개)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사업체 방문 · 면접 조사
- 협조사항 : 조사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엄격하게 보장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 통계팀 729-2274

상하수도요금 계좌이체로 납부가능

- 시행시기 : 2008년 2월 고지분부터(2.20 납기분)
- 입금계좌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입금계좌(농협) 고지
- 입금방법 : 은행CD/ ATM기, 인터넷 · 텔레뱅킹(23:00)
- 편리한점 : 고지서 분실시 수도행정과 · 구청 수도민원실서 가상계좌 · 상하수도요금 확인받아 이체 가능, 납부기간 경과시 납기후 요금으로 납부
- 주의사항
  - 입금금액은 청구금액(당월분, 체납분 등)과 일치
  - 본인의 농협입금계좌(가상계좌) 번호 확인 후 입금
  - 주거래은행은 농협, 타은행 입금시 송금수수료 발생

구청 수도민원실 | 수정구 729-5575~7 중원구 729-6575~7
분당구 729-7575~7, 수도행정과 요금팀 729-4061~6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 실시

- 내용 : 수돗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청하면 즉시 현장출동해 수질검사 실시
- 신청 : 복정정수장수질기동반 729-4157, http://water.cans21.net

2008 성남시청인터넷수능방송 안내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cans21.net) → 클릭
-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성남시인터넷수능방송' 입력 후 검색
- 인터넷방송국주소(http://edu.cans21.net) 입력 후 접속
- 블로그 : 영역별 선생님, 대학별 고사, 학습법
- 수 능 : 영역별 강의(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65개 강좌/ 내신 : 고1 · 2 · 3과정 59개 강좌
- 논술 · 구술 16개 강좌/ 학습법 3개 강좌
- 연회비 2만원에 2000여 강좌 무료 수강
- 강남구 대치동 강사의 비법교재 및 학원식 강의

공보담당관실 홍보기획팀 729-2073

성남영어마을 우수학생 39명 해외연수

성남시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1월 31일 성남영어마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학생 중 선발된 남녀중학생 39명을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공립 중등학교(3개 학교)로 4주간 연수를 보냈다. 중학생 연수단은 2월 28일까지 현지 학생들과 동등한 정규수업을 받으며 현지 주민들의 자택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실생활 영어를 익히게 된다.

성남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는 성남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 유해약물 · 유해업소 ·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발생케 해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건이나 행위다.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성명 · 주소 · 연락처, 위반행위 내용 등을 증빙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건별 5만~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729-3033

재/난/안/전/3/6/5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 상시 운영

시는 생활주변에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물에 대해 요청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 시설주에게 보수 · 보강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 대상 :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축대 · 옹벽 등 소규모 위험시설
  ※ 단 아파트, 연립주택(20세대 이상), 소송 · 공사장분쟁, 법적검검은 제외
- 신청 : 시청 · 구청 · 동 주민센터 민원실 방문 → 신청양식 기입 → 신청 시 홈페이지(www.cans21.net) → 유익한정보 → 안전문화운동 → 안전점검청구제

재난안전관리과 안전점검팀 전화 729-3562~3 팩스 729-3539

해빙기 안전검검 · 정비 실시

시는 해빙기 대책기간(2.11~4.30)을 설정, 3월 10일까지 안전점검을 펼친다.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 19개반 70여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해빙기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지하굴착 또는 절 · 성토 공사장 76개소를 비롯해 절개지 · 낙석위험지역, 축대 · 옹벽 등 모두 86개 위험시설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조속한 시일내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확인과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안전과 안전점검팀 729-3562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무료 이용안내

- 이용방법 :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 휴대전화 031)1399
- 운영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 상 담 자 : 전문의사 및 전문 상담요원
- 상담내용 : • 응급환자를 위한 병 · 의원 및 약국안내 • 응급처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안내 • 구급차 출동 연결업무 • 이송 중 환자를 위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 교육 •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대형 재난에 따른 대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정보 제공 ※ 전화요금 외 별도 상담료 부과되지 않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 729-3872

산불조심! 2.1~5.15 성남시는 환절기를 맞아 2월 1일~5월 15일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복지정책 ABC ❶ 출산장려

아동양육수당 및 출산축하금 지원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은 1981년 2.66명에서 점점 감소해 2005년에는 세계 최저 수준인 1.08명이 되었다. 그 중 성남시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07명으로 경기도(1.12명)는 물론 전국 평균(1.1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8년부터 성남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출산 장려를 유도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 '자녀 양육하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 아동양육수당 및 출산축하금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먼저 **아동양육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36개월의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므로 대상 아동은 2005년 4월 이후 출생아부터이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아동의 연령이 36개월이 될 때까지 월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신분증 및 도장(서명), 통장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말일경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출산축하금은 1월부터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의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에게 1인 100만원이 지급된다.

출생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및 도장(서명), 통장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족여성과 건강가정팀 729-3073
구현주 기자 sunlin-p@hanmail.net

【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임산부와 영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익한 강좌 】

지역	강좌명	대 상	접수	개강일	과정	접수방법 및 연락처
수정구	아기맞이교실	보건소 등록 임산부와 남편	4월중 예정	5 · 10월	2주	전화, 방문 729-3845~6
	오감발달놀이교실	생후 5~10개월 영유아	3월중	4,15	5주	방문접수 후 추첨 〃
	출산준비교실	보건소 등록 임산부	접수중	3,4	6주	전화, 방문 〃
중원구	직장여성 출산준비교실	시 거주 임산부 중 직장여성	접수중	3,15	6주	전화, 방문 729-3907
	오감발달놀이교실	생후 5~10개월 영유아	마감	3,12	6주	전화, 방문 729-3906
	출산준비교실	시 거주 임산부	마감	3,12	6주	전화, 방문 729-3907
분당구	모유수유클리닉	임신8개월~분만후	접수중	3,22	1회	전화, 방문 729-3965
	오감발달놀이교실	분당구 거주 생후 6~12개월 영유아	접수중	3,7	6주	방문접수 후 추첨 729-3966
	출산준비교실	분당구보건소 등록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접수중	3,7	6주	방문729-3965

※ 2008년도 1기 마감된 강좌는 2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 현장 | 신흥2동 '참마음 운동'

복지 사각지대 파고드는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

▲ 독거노인 생신챙기기

▲ 이 · 미용봉사

수정구 신흥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심원섭)는 9개 단체와 90여명의 시민이 후원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참마음운동'을 추진,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인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조손, 모 · 부자, 소년 · 소녀, 실직) 1,504세대에 총9회에 걸쳐 '사랑의 쌀과 떡국 떡'(명절시)을 전달했고, 동 주민센터 3층에 샴푸대, 높낮이 의자, 세트대 등을 갖춘 미용실을 완비해놓고 이 · 미용실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월1회 독거노인 및 열린사랑의 집에 정기 '이 · 미용 무료봉사'를 비롯해 결손가정에 무료커트, 거동불편자에게는 출장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증가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부 확인과 위급 상황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1일 1회 '사랑의 요구르트 전달', 필요한 생필품 지원, 삶의 의욕과 희망의 향기를 전하는 '독거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도 호응을 얻고 있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결손 가정에게는 '사랑의 교복'을 전달하고, 경기도 대한적십자 수정봉사회로부터 세탁전용 차량 1대(15톤)를 지원받아 빨래방을 운영, 독거노인의 침구 및 의류를 수거해 세탁 배달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거동 불편자를 위한 목욕봉사, 어르신 무료 영화상영, 장애인 외출돕기, 어려운 이웃 전등교체 등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작은 걸음으로 셋째자녀 출산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념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참마음운동의 시작부터 지켜본 노광자(신흥2동 주민자치위원) 씨는 "드러나지 않는 소박한 발걸음에 마음을 모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따뜻한 관심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차별없이 비춰주는 태양만큼이나 빛난다"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는 심 위원장을 비롯한 신흥2동장, 주민생활지원팀장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사람은 평생 살면서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일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며,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하는 세 가지 여유로움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마음은 바라고 계산되지 않는 사랑의 '참마음 여유로움'으로 산다면 우리가 꿈꾸는 복지의 유토피아는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흥2동 주민생활지원팀 729-5631~4
고정자 기자 kho6488@hanmail.net

복 · 지 · 단 · 신

건강가정지원센터 2008년 3월 프로그램

- 3.12/19/26(수) 19:30~21:30 부모교육 아카데미
- 3.15(토) 09:30~12:30 다시 쓰는 부부이야기
- 3.8(토) 09:30~12:30 3월 방문봉사 및 지역사회 나눔활동
- 신청 및 문의 755-9327, 9329
- 가족상담실 이용 : 전화상담 ☎755-9338 • 사이버상담 www.family.go.kr • 면접상담 · 심리검사 · 결과해석상담(전화상담 후 사전예약에 의한 센터 내방상담)

※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상담실 [사전예약] 매주 화요일 18:00~21:00

장애인 가옥내 시설 개 · 보수 '해피하우스' 운영

저소득층 장애인의 불편한 가옥내 시설을 개선하는 '해피하우스 사업'이 운영된다. 분당구보건소는 동 주민센터 복지사를 통해 수요자를 파악하고 봉사자를 모집해 현관 방문수리를 비롯해 경사로 · 화장실 핸드레일 설치, 수도꼭지 교체 등 거동 불편자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729-396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안내

- 대상 :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종류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 한도 : 각 700만원(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
- 조건 : 연 3.4%,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접수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www.welco.co.kr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안내

- 대상 : 대부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근로자
- 한도 : 체불임금 범위내 1인당 500만원 한도
- 접수 : 월2회 접수마감(1~15일, 16~말일)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www.welco.co.kr

적십자회비로 사랑을 전하세요!

- 집중모금기간: 2008.2.29(금)까지
- 문의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230-1651~4

제5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의정방향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 !

2008년도 제150회 임시회 개최

성남시의회(의장 이수영)는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5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연번	안건명	소관부서	소관위원회
1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2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5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
6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
7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전추진단	자치행정
8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	〃
9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10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환경관리과	경제환경
11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
12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예술과	〃
13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	〃
1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체육청소년과	〃
15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	〃
16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설치 철회 촉구결의안	보건위생과	〃
17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계획과	도시건설
18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토지정보과	〃
1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통기획과	〃
20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개발과	〃
21	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	〃
22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	〃
23	수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	〃
24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	〃
25	태평2동 소재 건우아파트 재건축정비 사업관련 문화재 완화 청원	〃	〃

경기도 시 · 군의회 의장협의회 제81차 정례회의 개최

경기도 시 · 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수영)는 지난 1월 28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제81차 정례회를 개최해 '2008년 협의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승인의 건' 및 '공유재산 관리지침 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등을 심의했다.

성남시의회 2008년도 적십자특별회비 전달

성남시의회는 지난 1월 24일 시의회를 예방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문병대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을 맞이하여 환담을 나누고 '2008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 태안 기름유출 피해 복구 자원봉사활동 전개

성남시의회 이수영 의장과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1월 31일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해변에서 기름때 제거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는 이수영 의장을 비롯한 총 45명으로 아침 7시에 출발, 태안군청에 도착해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준비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피해현장인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해변가에 도착해 바위와 자갈 등에 묻은 기름때를 제거했다.

이날 자원봉사단을 이끈 성남시의회 이수영 의장은 "바쁜 의정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및 직원들이 적극 동참해주어 기름유출로 수십 년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은 슬픔에 작으나마 힘이 돼 줄 수 있게 되어 우선 기쁘고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설날 맞아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7개소 방문 위문 · 격려

성남시의회는 설을 맞아 성남시 노인요양시설 및 정신지체 장애시설, 노숙인 쉼터 및 아동시설을 방문해 우리쌀 20kg 백미 32포대 및 컵라면 20박스를 전달하고 시설 생활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치안유지 및 재난예방 안전에 애쓰고 있는 경찰서 전 · 의경대와 소방서 의무소방대를 방문해 컵라면 500박스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낙생고등학교 발명 동아리 '에디슨 따라잡기'

프로 발명가 수준의 학생과 화려한 수상실적 자랑

분당구 판교동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낙생고등학교. 1964년 개교 이래 눈부시게 발전하는 명문 고등학교다. 명문 대학 진학은 물론 농구부, 각종 동아리 활동 등 학문과 인성을 두루 갖춘 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30여개의 동아리 활동 중 발명 동아리 '에디슨 따라잡기'는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유명한 동아리다. 1994년을 시작으로 매년 각종 대회 출전, 다양하고 화려한 수상 실적을 갖고 있는 이 동아리 뒤에는 지도교사 서재흥(지구과학 · 사진 위 중앙) 선생님의 능력과 열정이 든든히 버티고 있다.

졸업식과 종업식이 끝나 썰렁한 학교 교정. 하지만 이 학교 별관 2층에 자리 잡은 발명 교실에 모인 발명 동아리 학생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계획을 세우고자 분주한 방학을 보내고 있다. 30여명의 회원이 올망졸망 모여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눈이 내리는 겨울만 되면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발명을 하게 되었다는 이남호(고3 · 사진 아래 오른쪽) 학생은 '눈 털어주는 비닐하우스'를 발명, 실용실안 등록까지 했다.

"기둥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간단한 조작으로도 눈이 자동으로 옆으로 떨어져서 무너지지 않게 만든 것이에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발명하고 싶어요." 기계 공학도를 꿈꾸는 이남호 학생이 쑥스러운 듯 자신의 작품을 설명한다.

여행용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다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벼운 여행가방을 발명해 특허출원까지 한 박형탁(고3 · 사진 아래 왼쪽) 학생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판매를 하지 못하는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많은 동아리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미래의 우리나라 이공계가 밝게 빛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알아내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하며 이러한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시간과 정열을 모두 쏟아 붓는 선생님 또한 존경스럽다.

학생들이 지금 처한 현실은 발명이나 개발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지지와 박수를 보내고 끝까지 지켜봐 주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낙생고등학교 709-1349
박혜정 기자 misop215@naver.com

성남시 청소년 문화체험연수기

〈2008.1.28~2.1 4박5일간 중국 심양시 등〉

1월 28일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처음 도착한 곳은 **대련시**. 깔끔하고 번화한 도시 모습의 첫 인상이 좋았다. 높고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도 많고, KFC, 스타벅스, 피자헛 등의 음식 브랜드들과 현대 등 한국산 자동차들,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 신기했다. 대련은 요녕성(遼寧省)에 속한 도시로, 요동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중국 제2의 무역항구다. 또한 중국의 유명한 과수산지이며, 해산물이 풍부하게 난다고 한다.

점심을 먹고 **요녕성의 단동**으로 이동했다. 압록강을 가운데 두고 북한의 신의주와 마주한 국경도시다. 버스 이동시간이 길어 점심을 먹고 출발했는데 깜깜해져서 도착했다. 단교의 야경은 매우 멋있었다. 단교는 한국전쟁 6 · 25때 중국이 북한에 군수물자와 병력 등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미국에 의해 파괴된 다리다. 우리의 아픈 과거와 연관되어 있어서 가슴이 아팠다. 압록강을 구경하고는 호텔로 이동했다. 난생 처음 가본 호텔은 신기하기만 했다.

1월 29일 솔직히 긴장해서 잠을 조금 설쳤다. **길림성의 집안**으로 이동할 때 압록강을 지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의 아침엔 아침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성을 이동하다보니 약 5~6시간이 걸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눈이 소복이 쌓인 밭의 모습이라든가 길거리에 있는 작은 시장터(옷과 생필품, 구정을 위해 복을 바라는 듯한 물건도 있었다.), 그리고 눈 쌓인 거리의 모습은 추위까지 잊게 할 정도로 멋있었다. 하지만 약간의 문화충격도 있었다. 이동시간이 길어 중간에 거리 화장실에 내렸는데 문도 없이 칸막이만 있었고 며칠 후 주유소 화장실에서는 그 칸막이마저 없어 난감했다.

길림성 집안에 도착해서 고구려 문화탐방을 시작했다. 맨 처음 간 곳은 **환도산성**. 고구려가 국내성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성에서 가까운 산에 축조한 산성이다. 옹성 모양으로, 3면 방위로 방어가 가능한 과학적 산성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간 곳은 고구려의 문화생활상을 보여주는 고분인 5회분 5호묘. 동쪽에는 청룡, 서쪽에는 백호, 남쪽에는 주작, 북쪽에는 현무가 그려져 있었고, 천장의 신선도 · 비천도까지 모두 신비롭다.

단동의 압록강 단교의 야경 ▲

▲ 장군총

심양고궁에서 필자 ▲

▲ 러시아거리

그리고 **광개토대왕릉비**를 보고 광개토대왕릉을 다녀왔다. 광개토대왕릉비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라는 광개토대왕의 시호를 줄여 '호태왕비'라고 하기도 한다. 414년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세운 것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비석이다. 광개토대왕릉비에는 고구려의 건국 신화, 광개토대왕의 일생 등이 적혀 있다고 한다.

이어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장군총**에 직접 올라갔다왔다. 이렇게 우리 유산을 직접 와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다른 나라에 있다는 것이 무척 아쉬웠다.

1월 30일 이번 연수의 주요 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심양 방문. 심양은 1998년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2003년부터 꾸준히 문화체험교류단이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심양고궁은 청조의 초대 황제인 누르하치와 2대 황제 태종이 왕조의 기초를 다지면서 건축한 황성이다. 북경의 자금성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고궁. 그 안의 청나라 자기 박물관도 정말 멋있었다. 맑고 세세하고 화려한 자기는 청나라의 문화를 깊이 보여주기에 손색이 없었다.

1월 31일 **심양시청**에 다녀왔다. 국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라 그런지 시청 관계자 분들이 우리를 매우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동안 성남에 살면서도 심양과 성남이 국제 자매결연도시라는 것을 몰랐는데,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국제관계도 관심을 가지고 좀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성남공원에도 가 보았다.

이제 마지막 일정을 위해 대련으로 다시 이동해서는 1904년 러시아가 일본에 통치권을 양도할 때까지 그곳에 거주하던 러시아인들이 지은 중국 속 유럽, **러시아거리**도 구경했다.

2월 1일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좁은 시야를 가진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계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우리 유산들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봐야 하는 현실은 정말 안타까웠만 우리 문화와 중국 문화의 역사적 공통점, 문화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더욱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재가 되고, 우리의 소중한 유산들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 후배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성남시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연수, 정말 내 평생 아름답고 소중한, 가슴 벅찬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성일여자중학교 1년 김연재

기지개 켜는 문화 공작소, 성남

책을 보며… 강좌를 들으며… 지혜를 배우며…

우수(雨水)를 지나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경칩(驚蟄),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春分)도 머지않았다. 봄과 함께 각종 교양 문화 프로그램이 속속 문을 열면서 성남 곳곳이 활기를 띠고 있다. 성남의 감성을 일깨우는 문화 체험 현장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휴먼도우미

독서문화전시회

01 지식의 보고(寶庫), 도서관

어려서부터 도서관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면 다양한 지식과 풍부한 감성을 지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주말을 무료하게 집 TV 앞에서 보내지 말고 자녀와 함께 방문해 보자.

정보문화센터 내 중앙도서관은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독서 및 지역관련 독서문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3월엔 『인성 그림책』, 4월 『똥장군』, 5월 『개구리와 게미의 생태』, 6월 『지하철을 타고서』(원화전시회) 등이 마련된다. 정보봉사2팀 729-4642.

분당도서관도 2월 12일~3월 23일 추천도서, 사서가 쓴 서평 등 총 112점의 독서정보자료 및 문화행사 사진 전시회를 갖는다. 정보봉사팀 729-4664

수정도서관과 중원도서관은 2008년 제1기 문화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부터 6, 7월까지 4개월 과정으로 독서지도 · 외국어회화 · 과학교실 · 서예 · 미술 등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좌가 준비돼 있다. 2월 27일부터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받는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 자세한 사항은 정보봉사파트로 문의하면 된다. 수정도서관 743-9600 중원도서관 752-3916

최첨단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한 성남시 **구미도서관**이 4월 16일 분당구 백궁로 77(구미동 16번지)에 개관한다.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자료열람실 5개실, 428석의 일반열람실, 평생교육을 위한 2개의 문화교실을 갖추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수서정리팀 729-4682

02 마음의 부자되기, '생활인문학' 시민강좌

문화도시 성남의 품격을 한 차원 높여주는 **성남아트센터**. 격조 높은 공연뿐 아니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양하고 알찬 아카데미 강좌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생활 속 인문가치 – 기억, 비판 그리고 아름다움'을 주제로 시민인문강좌 '생활인문학'을 선보인다. 봄(3~5월) · 여름(6~7월) · 가을(8~10월) · 겨울(11~12월) 학기를 통해 따뜻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삶의 가치, 이해와 배려를 배울 수 있다. 수강료는 없으며 2월 29일까지 온라인(www.snaf.or.kr 에서 프로그램 확인 후 이메일(we@snart.or.kr)로 신청)이나 전화(문화기획부 783-8125/ 7)로 선착순 접수받는다.

생활인문학 시민강좌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의자	강 의 제 목
3.4	16:00~19:00	김문조	호모 휴머니타스 선언 : 생활인문학을 향하여
3.11	16:00~19:00	김동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문화와 문화정책
3.18	16:00~19:00	김성도	일상성의 리듬과 숭고함 : 일상의 존재론적 깊이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3.25	16:00~19:00	박여성	생활 속 상징과 기호
4.1	16:00~19:00	정병규	특강 : 그림책의 이론과 실제
4.8	16:00~19:00	민유기	역사 속의 성남 : 성남의 역사와 민간설화
4.15	16:00~19:00	라르들리에	특강 : 현대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예절과 의례
4.22	16:00~19:00	허 경	인문학과 문화 : 음악의 경우
4.29	16:00~19:00	오장근	여가문화와 광고이미지 (성남시민들의 여가와 광고 이미지)
5.6	16:00~19:00	김우창	특강 : 심미적 이성, 그리고 생활인문학
5.13	16:00~19:00	최영호	특강 : 해양문화와 인문학적 상상력
5.20	16:00~19:00	심보선	문화민주주의를 위하여
5.27	16:00~19:00	전체강의자	종합토론과 강의평가

*강사와 커리큘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연염색 ▲

03 삶의 지혜 배우기 '참살이 실천교육'

자연과 전통을 체감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는 '참살이 문화교육'도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련한다. 향토음식반, 궁중음식반, 발효음식반, 전통떡반, 김치빕반찬반, 천연염색과 생활소품, 규방공예반 등 7개반으로 6~12회까지 전통문화 이론과 실습교육을 3~5월중 실시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는 본인부담. 3월 초순 센터 홈페이지(www.snagri.co.kr)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

여성소비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천연염색, 전통음식, 농촌체험교육 등 월1회 '소비자 웰빙아카데미 강좌'도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 일부는 본인부담이다. 3월 초순 직접 방문접수 받는다. 생활기술팀 729-4032

이 밖에 가정의 주거공간을 이용한 꽃재배를 위한 성남시민을 위한 가정원예대학이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분재, 난, 국화 등 3개 분야로 초급, 중급, 고급 3개 과정이다. 초급반 수강신청은 3월 3~5일 선착순 방문접수 받는다. 기획지원팀 729-4011/ 3

가정원예대학 ▲

농촌체험교육 ▲

탐방 정보문화센터 중앙도서관

'영화 읽는 독서회'

영화 속 미술감상 · 음악읽기 · 문학찾기… 삶의 자양분 키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종합예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신 정보문화센터 중앙도서관에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주세요." 김창수(사진 앞줄 오른쪽) 회원은 거듭거듭 당부를 잊지 않는다.

'영화 읽는 독서회'?

지금까지 영화는 보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 회원들은 영화를 읽는다. 단순히 영화를 보며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화를 읽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 회원들.

정보문화센터는 2004년 7월 '영화 읽는 독서회'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약 7,500장의 영화CD를 소장하고 매주 금요일 10~12시 멀티미디어실을 개방해 줌으로써 또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돼 현재까지 꾸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주 금요일 10시면 10여명의 회원은 '이번에는 어떤 좋은 영화를 만날까' 하며 마냥 설렌단다. 이제 이들은 혼자서 즐기는 영화감상은 성에 차지 않는다. '영화 읽는 독서회'는 서로 다른 하나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좋은 영화를 감상한 후 개개인의 서로 다른 느낌을 후기답을 통해 공유하게 됨으로써 영화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걸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넓어진 그 시야로 보는 영화를 통해 미술을 감상하고, 음악의 소리를 읽고, 그 안에서 문학을 찾아가는, 총체적인 예술의 세계 속에서 삶의 자양분을 만들어 내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박영옥(50 · 앞줄 가운데) 회원은 영화로 인해 날마다 삶이 설렌다고 한다.

일반주부, 성악가, 수필가 등으로 이루어진 이 모임은 회원자격에 조건이 없으며 중앙도서관 정보봉사2팀에 접수 후 참여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이날은 한 회원이 애타게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는 영화, 아일랜드 항쟁사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란 영화를 스크린 가득 펼쳐 놓고 있었다. 과연 오늘, 이들은 저 한편의 영화를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스크린이 조금만 더 컸으면 정말 좋겠다는 아쉬움을 달래며 회원들 사이에서 잠시 영화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회원가입 문의 : 중앙도서관 정보봉사2팀 729-4642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

장 담그기 장인 허숙경 씨

"정월에 담가야 장맛이 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노하우 익혀"

음력 정월 이맘때쯤이면 장을 직접 담가서 먹는 집안은 주부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대체로 추위가 풀리지 않은 정월달에 장을 담가야 가장 맛이 있다고 한다. 옛날엔 장은 한 집안의 모든 맛이었고, 그 뿌리였고 어찌 보면 그 집 안주인의 모든 것을 드러내 주는 증표이기도 했다.

요즘 대부분의 주부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장을 담근다는 일이 남의 일이 되고 말았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오랫동안 장을 담가 팔기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여성단체생활개선회 전 회장인 허숙경(65) 여사를 만났다.

한복이 잘 어울리는 허 여사는 지금 살고 있는 분당구 이매동으로 시집을 온 지 40년째다.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님에게서 장 담그는 법을 전수받아 지금까지 장을 담근다.

"오랫동안 장 담그며 회원들에게 지도도 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40년 동안 해오다 보니 힘들진 않지만 직접 장을 담가서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전통음식이 좋은 걸 알면서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허 여사의 말에 의하면 메주는 입동 전후에 쑤어 45일 동안 발효를 시켜 햇볕에 10일간 바짝 말린 후 장 담그기 하루 전날 깨끗하게 씻어 불기를 빼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 물에 소금을 푼 강도가 18도가 적당(달걀을 담그면 동전만큼 보일 때)하며 소금물도 하루 전에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금이 장맛을 좌우한다며 구입해서 2년이 넘게 간수를 빼고 사용해야 한다는 걸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깨끗이 준비한 항아리에 메주를 넣고 고운 베수건을 이용해 소금물을 부은 다음에 마른 홍고추와 숯을 넣으면 된다고 한다. 또한 털 없는 짐승인 뱀이나 용 날만 피하면 된다고.

한편 허 여사는 그동안 자신만의 노하우와 농업기술센터 여성단체생활개선회에서 8년 동안 받은 교육을 접목시켜 지도도 하면서 솜씨를 다져왔다.

6년 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의 여성 농업인 일감 갖기 정책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허가를 받아 "안말전통"이란 상표등록을 하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 된장, 고추장, 청국장을 판매하게 됐다며 허 여사는 이천에 있는 본인의 밭에다 직접 콩을 재배할 뿐더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한 순수 국산 씨앗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권할 수 있다고 한다.

허 여사는 "전통적인 음식이 맥을 잇지 못하고 하나씩 사라져가는 게 안타깝다"며 "우리 주부님들이 앞장서서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란다. 아직 장 담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주부님들,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는지.

분당구 이매동 343번지 전화 703-1986
이길순 기자 eks323@hanmail.net

통장님 통장님

우리 통장님 ②

문인화작가 우월(旴月) 김 경 애 씨 (분당구 야탑3동 37통 통장)

"살기 좋은 동네, 통 · 반장 힘만으로는 역부족… 주민협조 절실"

"문인화 전국대회 입상은 주민자치센터의 취미교실 덕분"

"고층 아파트 가운데 자리한 우리 37통 빌라촌을 아름답고 정이 넘치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동네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야탑3동 37통 통장직을 맡아 활동한 지 1년 2개월이 됐다는 김경애(50) 통장의 작은 소망이다.

13년을 이곳 목련마을에서 살았다는 김 통장은 때문에 동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지만 처음 통장직을 권유받고는 망설였다고 한다. "사업을 하는 남편 내조하며 두 딸 뒷바라지만 하던 전업주부인 내가 더구나 누구 앞에 나서는 것을 무척이나 부끄러워하는 내성적인 성격인데… 그러나 주위의 적극적인 권유로 용기를 냈지요."

우선 주민 단합을 위해 언젠가부터 유야무야 돼버린 반상회를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반상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호응은 너무나 낮았다. 부녀회 구성을 시도해봤지만 역시 실패. 김 통장은 궁리 끝에 37통 전체 224세대를 대상으로 '통상회'를 열었는데 참석한 세대는 단 한 세대뿐이었다고.

이처럼 주민들의 호응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 김 통장은 그중 가장 큰 원인으로 주민의 50%정도가 세입자인데다 대부분 맞벌이부부가 많다는 것을 꼽았다.

또한 오랫동안 반상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통장은 한 반이 48세대였다가 두 반이 한 반으로 합반이 돼 96세대가 되면서 막상 반상회를 연다 해도 이들 주민을 수용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부터인 듯싶다고 했다.

새내기 통장으로 1년 2개월을 보내며 노력한 것 만큼에 따르지 못하는 성과에 맥 빠질 때도 많았다는 김 통장은 목련마을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었다.

"단지내 노인정을 활용해 반상회든 통상회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회합을 지속적으로 가질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부녀회 구성도 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호응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는 통장이나 반장의 힘만으로 만들 수가 없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목련꽃이 필 무렵, 그동안 구상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볼 생각이라는 김경애 통장은 평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2년 전부터 야탑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국화를 배웠다. 그 솜씨로 지난해 개최된 '전국 새만금 서예 문인화대전'에서 문인화 두 작품이 각각 입선과 특선으로 입상, 그녀의 재능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는 주민자치센터에 한국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취미교실이 있었던 덕"이라며 미소 지었다.

목련마을이 교통은 다소 불편하지만 대신 공기가 좋고 나지막한 산도 있어서 경관이 좋은 동네라고 자랑하는 김 통장은 "이런 우리 목련마을을 위해, 주민을 위해 취선을 다해서 타 동네 부럽지 않은 주민 화합과 정이 넘치는 동네가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 주변에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따뜻한 삶을 일구는 분으로 추천하고 싶은 통장님이 있으면 〈비전성남〉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29-2075~6

기자와 떠나는 성남역사기행 (2)

분당 중앙공원과 문화유적 한산이씨 묘역 · 수내동 가옥

성남은 1968년 이전까지 광주지역과 함께 역사를 공유했다. 광주는 고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행정구역상 상당히 넓을 뿐 아니라 중앙의 수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꽤 많은 역사적 인물과 관련을 맺고 있다. 현재의 성남지역에도 그들의 묘소가 남아 있다.

성남시 안에 있는 나지막한 산들을 오르다 보면 유서 깊은 묘소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많은 묘역 가운데 우리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시뿐 아니라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심공원인 분당 중앙공원(분당구 수내동) 내에 위치한 한산이씨 묘역이다. 1990년 4월 26일 경기도기념물 116호로 지정된 한산이씨 묘역은 문화재와 공원이 조화롭게 잘 보존되고 있어 공원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무덤의 주인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중앙공원이 위치한 영장산 일대는 고려 말 성리학의 태두, 목은 이색의 후손들이 국가에 공을 세워 국가로부터 하사받은 사패지로서 이후 조선조 중엽부터 후기까지 이곳에 한산이씨의 선산이 조성돼 왔다.

무덤의 주인들은 조선조 문신으로 봉화현감을 역임하고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를 지낸 이장윤(1455~1528)과 그의 아들 이질 · 이정, 손자 이지숙 · 이지환, 그리고 그 후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조선조 문신으로 이조판서, 황해도 관찰사, 부사 등의 높은 벼슬을 지낸 인물로 묘는 대부분 이들의 배위와의 합장묘다.

특히 흥미로운 묘소는 이경류의 묘와 그 아래 평퍼짐한 봉분 모양을 하고 있는 그의 애마총이다. 조선 선조 때 병조좌랑인 이경류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상주전투에 참전해 왜군과 싸우다가 상주판관 권길 등과 함께 전사하였는데 고향에서는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경류의 말이 주인의 피 묻은 옷과 유서를 물고 집으로 돌아오자 비로소 그가 전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은 경북 상주에서 이곳 수내동까지 500여리 길을 달려와 주인의 소식을 전한 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다가 죽었다고 한다. 그 후 충성스런 말의 죽음을 가상히 여겨 이곳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또한 이 묘역 최초 무덤의 주인인 이장윤은 세간에 널리 알려진 토정비결의 저자로 추정되는 토정 이지함의 조부이며, 이곳 영장산을 조부 이장윤의 묘터로 잡은 이가 바로 토정이란 사실이 흥미롭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묘터를 잡을 때 산의 생김새가 매화낙지형에 거북이 형국의 산이라 거북이는 물이 없으면 죽고 목을 길게 뻗는 동물이므로 산줄기 앞에 큰 연못이 있어야 한다며 연못을 조성하였다 한다. 그 연못이 분당호 연당지이며 수내동 고가 앞쪽에 위치한 옛 연못터이다.

중앙공원에는 이들 묘소 외에도 한산이씨와 관련된 유적이 많다. 영장산 등산로 노변에 한산이씨 세장비와 한산이씨 묘역비가 있으며, 이장윤 · 이질 · 이지숙의 삼세유사비(영조4년), 이증 신도비(종이품 이상 벼슬아치의 무덤 근처 길가에 세우던 비, 숙종21년), 이경류 정려비(영조3년), 이정룡 신도비(영조4년)가 중앙공원 호수 옆 탄천을 바라보고 남서향으로 서 있다. 충신 이경류의 묘 앞엔 이경류 묘갈(무덤 앞에 세우는 묘표, 영조4년)이 세워져 있다.

중앙광장 한쪽에는 한산이씨 묘역과 함께 경기도 문화재 자료 78호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는 수내동 가옥이 있다. 조선조 말 경기지역 전통가옥의 하나로 150~200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 추측되고 있다. 개발되기 전 이 지역에 70여 호가 마을을 이루고 살았으나 분당 신도시 건설로 모두 철거되고 이 집만 남게 되었다. 한산이씨 문중에서 관리하던 이 집은 전통가옥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와 연못과 정자터 등과 더불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소박한 농촌마을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숨쉬고 있는 시의 문화유적이 많다.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문화 유적이자 보물이다. 우리 곁에 있는 유적에 관심을 가진다면 어느덧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이 살아날 것이다.

도움말 : 성남시 학예연구사 진영욱
전미향 기자 mhchun@cans21.net

태평4동 어머니자율방범순찰대

'우리에겐 우리 동네가 국보 1호'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열시가 다되어가는 시간, 태평4동 어두운 골목길, 빨간 불빛 여러 개가 골목을 누비며 다닌다. 웬만한 주민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하지만 이 시간까지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니는 저 불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밝은 곳에서 본 그들은 붉은 방망이를 손에 들고 멋진 제복을 갖춰 입은 어머니 자율방범대 대원들이었다. 현재 34명이 활동하는 태평4동 어머니자율방범순찰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별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동네의 밤거리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한다.

취약지구 및 우범지역을 순찰하며 청소년 선도를 하기도 하고 각종 민원신고 및 야간교통안전 등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분실된 지갑이나 핸드폰 찾아주기, 켜져있는 자동차 라이트, 꺼져있는 가로등, 터진 수도, 길거리의 전단지 줍는 일까지 어머니들은 감시카메라 눈에 걸린 것이라면 뭐든지 해결사가 되어 준다.

처음엔, 뭉쳐서 늦게까지 노는 아이들을 타이르는 일이나, 술병이 나뒹구는 어두운 운동장에서 폭죽을 터트리며 노는 아이들 곁으로 다가간다는 것이 어려웠다. 적대적이거나 반항적이던 아이들을 어머니의 입장에서 꾸준히 계도해 온 결과 지금은 다가가기만 해도 스스로 뒷정리를 하거나 먼저 말을 걸어오며 친근감을 표현해 온다. 달갑잖게 여기던 주민들도 수고한다며 음료수를 건네주기도 하며, '우리 주변도 돌아봐 달라'고 부탁해 올 때면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이런 뜻을 반영하듯 태평4동 유광영 동장도 "대장님 이하 어머니방범대가 야간에 순찰하며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덕분에 우리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현재 태평4동 지구대 대장을 맡고 있는 김혜자(52 · 사진 앞줄 가운데) 씨는 창설 당시부터 활동해온 초기대원이다. "모든 것을 자체 해결해야 하는 무보수, 무지원의 살림이라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에도 한계는 있다"고 토로한다.

작년에는 작은 보탬이지만 불우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역의 특성상 독거노인들에게 김치를 담가주거나 반찬봉사를 하고 싶지만 가 건물인 지구대에는 수도가 없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아 힘드시겠다는 말에 "좋은 일하고 운동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겸손함으로 대신하는 대원들. '우리에겐 우리 동네가 국보 1호다.' 이들이 있어 태평4동은 올해도 따뜻하고 안전한 동네가 될 것 같다.

어머니자율방범연합회 031-736-0112
박경희 기자 pkh2234@hanmail.net

2008년 성남시민 합동결혼식 신청자 모집

성남시 정보문화센터 여성문화회관 내 학습동아리모임으로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해 이미용봉사 등 각종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인 '성남다사랑모임'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사실혼 부부들을 위해 합동결혼식을 거행한다.

- 결혼식일시 : 2008.4.20(일) 14:00
- 결혼식장소 : 야탑동 정보문화센터 대강당 3층
- 모집인원 : 10쌍 내외(선착순)
- 혜택 : 예식비용 전액무료(피로연은 본인 부담)
- 대상 : 1순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2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1 · 2순위 외의 신청자
- 신청기간 : 2008.2.25~4.10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 주민등록증 지참 신청)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기획연재 공공디자인(2)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간판에서 눈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튀어야 산다

어느 광고의 카피처럼 우리는 남과는 다른 모습으로 돋보이고 싶어 한다. 이런 심리는 건물의 간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듯싶다.

'더 크게 더 잘 보이게'를 외치며 여기저기 형형색색의 간판, 그 안에는 내 것이 더 잘 보여야 한다는 치열한 경쟁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다.

건물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색상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간판이라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면 개성은 사라진 똑같은 모습뿐이다. 이런 건물들이 줄지어 모여 산만하고 어디하나 시원함이 없는 거리풍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름다운 밀라노 · 파리 거리

필자가 이태리의 밀라노를 방문했을 때 보았던 대부분의 간판들은 화려한 색상도 커다란 글자도 보이지 않았지만 심플하면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오히려 한눈에 들어오고 잘 읽혀지며 오래된 석조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고풍스러운 멋이 느껴졌다.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역시 통일된 색상과 크기, 최소한의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는 통일성 있는 간판들로 오늘날의 아름다운 샹젤리제 거리를 만들었다.

◀ 빽빽이 광고물로 뒤덮여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우리의 건물들

▼ 건물의 특성을 살리면서 깔끔하게 정리된 유럽의 간판들

성남시에서도 모란과 태평역 사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대동 닭죽촌 민속마을의 환경개선에 테마가 있는 간판으로 조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시도와 더불어 시민 스스로 간판을 정화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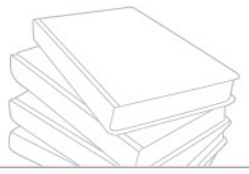
주변과 조화를 이룬 통일성 있는 간판크기, 각각의 개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유럽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아름다운 거리 풍경을 만들어 내어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정자동 카페거리가 좋은 사례이다.

비움을 통한 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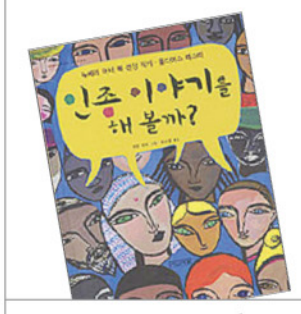
이제는 불필요한 요소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여유와 쾌적함을 채워 넣어야 할 때다. 비워냄으로 또 다른 멋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만의 멋이 있는, 아름다운 간판이 있는 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배려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면 유럽의 아름다운 거리 못지않은 눈이 편하고 즐거운 거리를 걸어볼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김정현 | 성남시청 도시산업디자인팀 디자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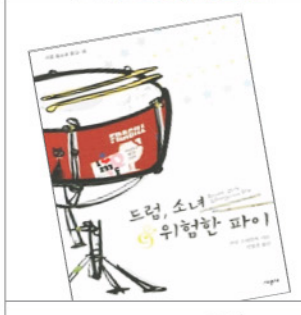
분당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



인종 이야기를 해 볼까?

줄리어스 레스터 | 사계절 | 2007 |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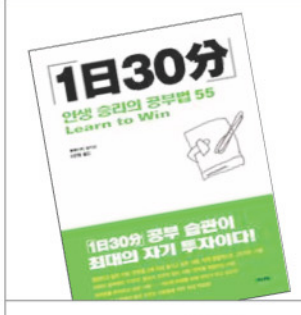
강한 어조로 인간평등을 말하기보단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듯 쉽고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그림작가 카렌바버의 화려하면서 자유로운 그림만 보고 있어도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다양한 개개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 이주와 국제결혼으로 다인종이 되어가는 현실에서 인종, 성별, 부의 격차 등을 뛰어넘어 개인 하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아이들에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일깨워준다. 〈 사서 안미아 〉



드럼, 소녀 & 위험한 파이

소넨블릭, 조단 | 시공사 | 2007 |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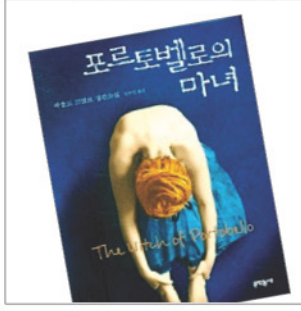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을 앓게 되면, 병과 싸우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든 현실과 싸우게 된다. 백혈병에 걸린 동생 제프리로 인해 스티븐이 겪게 되는 변화와 이를 극복해 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스티븐은 동생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에 무기력함을 느끼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동생의 웃음을 되찾아준다. 〈 사서 김유경 〉



1일 30분 : 인생 승리의 공부법

후루이치 유키오 | 이레 | 2007 |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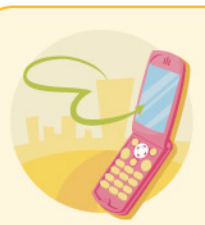
이 책은 성공은 원하지만 좀처럼 실천이 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승리의 노하우가 담긴 책으로 하루 30분 공부 습관을 들여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어떤 공부방법, 사고방식, 습관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면, 집중력을 키우는 법,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 등도 설명한다. 공부는 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막막하거나 자신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 사서 유진희 〉



포르토벨로의 마녀

코엘료 파울로 | 문학동네 | 2007 | 테마 : 유럽소설

<연금술사>로 유명한 작가 코엘료의 최신작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사랑의 이야기를 주인공 아테나의 이야기를 그녀를 관찰했던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의견으로 엮은 독특한 구성의 소설이다. 영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비범한 여성을 통해 모성의 근본적인 의미와 본질, 신의 여성성들을 탐구한 책이다. 〈 사서 여은미 〉



소비자 Q & A

공짜 폰인 줄 알고 구입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 청구

Q 3개월 전쯤 공짜 폰이라고 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단말기 대금은 미리 대리점에서 완납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휴대폰 사용 요금은 자동이체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요금만 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요금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휴대폰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할부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단말기 값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우선 가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에 무료 폰으로 되어있다면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계약서에 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공짜 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계약서에는 할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말로 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을 다르게 작성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계약서를 자세히 읽지도 않고 판매자가 표시해준 여러 곳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해구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짜휴대폰을 조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

중앙도서관 추천 도서

〈일반〉

아버지의 가계부 | 저자 제윤경 | 출판사 티비 | 보통 사람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
강대국의 조건 | CCTV다큐멘터리 대국굴기 제작진 | 안그라픽스
음식 잡학 사전 | 윤덕노 | 북로드 |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음식에 대한 이야기
반 고흐, 영혼의 편지 | 신성림| 예담출판사 | 개정증보판
한국의 젊은 부자들 | 박용석 | 토네이도 | 자수성가한 20억 젊은 부자 176명의 성공투자전략 심층분석!
끌어당김의 법칙 | 마이클 로지에 | 웅진윙스
지구별 워커홀릭 | 채지형 | 삼성출판사 | 360일간 지구별을 걷다
남자의 인생지도 | 게일 쉬히 | 황금가지 | 중년의 길을 걷기 시작한 남성들의 안내서
삶의 열정에는 마침표가 없다 | 윌러드 스콧 | 크림슨 | 명사들의 후반생의 비결
브레인 다이어트 | 로건 앨런 C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올바른 음식섭취 통한 두뇌능력 최대 활용방법

건강 칼럼 (10)

어린이 눈 관리, 이렇게 하자

※ 이번호를 끝으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진의 건강칼럼을 마칩니다. 다음호부터는 응급의료처치 방법이 연재됩니다.

○ 덧눈꺼풀

아래 눈꺼풀의 속눈썹이 눈의 검은 동자를 찔러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속눈썹이 찔러 눈을 자극하게 되면 가렵고 이물감이 생겨서 자주 비비거나 눈곱이 낄 수 있다. 자주 눈물이 고이며, 밝은 곳에서 눈을 잘 못 뜬다.

특히 공부하거나 책을 읽을 때는 시선을 아래로 두면서 속눈썹이 검은 눈동자를 더 자주, 심하게 찌르기 때문에 더 쉽게 눈이 피로해진다.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각막이 헐거나 난시가 생기기도 한다. 수술로 치료하며, 수술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 선천성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윗눈꺼풀을 위로 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 윗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이다. 처진 윗눈꺼풀이 시선을 가리면 약시가 될 수 있고, 난시 등의 굴절이상도 생길 수 있다.

○ 굴절이상(근시 · 원시 · 난시)

먼 곳은 잘 보이지 않지만 가까운 곳은 잘 보는 '근시', '원시', 그리고 '난시'를 말한다. 약시가 없는 단순한 굴절이상인 경우, 안경을 쓰면 잘 보이고 안경을 쓰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 동양인은 인구의 약 75%가 근시라는 보고도 있다.

어린이들은 굴절상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한다. 생후 직후에는 원시가 많다가 빠르면 4~5세, 늦으면 사춘기 정도부터 근시로 되는 경우가 많다. 올해 안과에서 정상 진단을 받더라도, 내년에는 근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성장기에는 정기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하다. TV를 볼 때 눈을 자주 찡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면 근시를 의심해야 한다. 고도근시는 유전되므로, 가족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과검사는 출생 직후부터 시작해야 한다. 1살 때 한쪽 눈의 백내장을 발견해 치료한다 하더라도 이미 약시가 심해 그 눈은 평생 못 쓸 수도 있다. 그만큼 안과 검사를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굴절이상이 있으면 맞는 안경을 써야 한다.

일단 안경을 써서 망막에 깨끗한 상이 맺혀 시력이 발달하는 데 적절한 자극이 주어져야 한다. 음식을 먹어야 몸이 자라듯이 깨끗한 상이 망막에 맺혀야 시력이 발달한다.

아이가 근시 진단을 받고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수시로 시력과 안경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6개월에 한번은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눈의 상태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안경을 바꿔줘야 한다. 굴절이상이 형제에게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 형제 중 한 명의 굴절이상이 발견되면 나머지 어린이도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 라식수술은 성인이 된 후에 하는데 시력이 정상적으로 발달된 상태라야 라식수술을 해 안경을 벗을 수 있다.

○ 약시

잘 볼 수 있는 눈인데 어려서 시력이 정상적으로 발달되지 않아 잘 보지 못하게 된 경우다. 약시는 크게 사시, 굴절이상, 매체혼탁 등 3가지 원인으로 생긴다.

첫째, 사시일 때는 두 눈의 정렬 상태가 달라서 보이는 것이 서로 다르므로 사시가 있는 눈에서 들어온 영상을 무시하게 되어 한쪽 눈의 시력이 발달하지 못한다. 둘째, 굴절이상이 있는 눈에서는 망막에 깨끗한 상(像)이 제대로 맺히지 못해 시력발달에 필요한 자극이 부족하게 된다. 셋째, 백내장이 있으면 뿌옇게 된 렌즈 때문에 망막에 상이 제대로 맺히지 못한다. 백내장으로 인해 뿌옇게 변한 상은 아주 강한 약시를 만드는 자극으로 알려져 있다.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약시는 많은 경우 치료될 수 있으며, 하루라도 일찍 치료를 시작할수록 시력이 좋아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 사시

보통 정면을 볼 때 두 눈의 까만 동자가 모두 눈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한 눈은 정면을, 반대 눈은 눈의 안쪽 · 바깥쪽, 위쪽 · 아래쪽 등 다른 방향을 향한 상태를 사시(사팔)라고 한다. 사시는 어린이의 약 2%에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다. 특히, 사시와 관련돼 고개가 기울어질 수 있어 고개가 기울어진 아이는 안과 진찰을 받게 해야 한다.

사시로 인한 고개기울임 환자가 실제로 몇 년 동안 물리치료 받고 오래 깁스 하고 심지어는 목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섣불리 판단해서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의 사시는 그냥 놔두어도 커가면서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좋아지는 경우는 실제 사시가 아니고 사시처럼 보이는 가성사시인 경우다.

사시는 치료시기를 놓치고 방치하면 두 눈을 함께 써서 보는 양안시, 입체시가 안 되고 약시로 될 수 있다. 부모가 사시 여부를 확실히 알기는 힘들며, 어린이에게 안과 이상이 있으면 나머지 가족도 안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끝>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황정민 교수
홍보실 787-1122

"건강할 때 미리미리 암 조기검진"

암 조기검진 안내

암은 개인의 건강생활실천과 조기검진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2008년도 암 조기검진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미리미리 암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진대상자(2008년 국가 암 조기검진 안내문을 받으신 모든 분)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접속 → '민원마당/건강검진' 클릭 → '검진기관 안내' 클릭
- 검사항목 :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중 암 검진표에 "대상"으로 표기
- 검진비용 : 개인 부담 없음.(국가 부담)
- 검진기간 : 2008년 12월 31일까지
- 검진절차 및 주의사항 : 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 방문 (※ 암 검진 전에 꼭 사전예약)
- 치료비 지원 : 암 조기검진 통해 신규로 암이 발견되면 치료비 지원

수정구보건소 729-3853, 중원구보건소 729-3912
분당구보건소 729-3972,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암 예방 강연회 안내

암 발생률 해마다 30% 증가, 매년 13만명의 암환자 발생. 그중 6만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예방 강연회를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목 : 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개선
- 일시 : 2008. 3. 21(금) 14:00~15:00
- 장소 : 성남시민회관 소극장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729-3853

건·강·교·실

2008년도 노인 의치보철사업 대상 모집

- 대 상 : 만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내 용 : 구강검진 후 대상자 선정되면 무료로 틀니 시술
- 신청기간 : 2008. 2. 29(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 문 의 : 보건소 구강보건실 | 수정구 729-3858
  중원구 729-3919 분당구 729-3979

어르신 건강관리 지도자 모집

- 대 상 : 자원봉사활동 원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 교육기간 : 3. 19(수)부터 주1회(기본과정 6주, 심화과정 6주)
- 교육내용 : 낙상예방운동, 노년기의 우울증 및 치매, 웃음치료 및 레크리에이션 등
- 신청장소 : 중원구 주민건강증진센터 732-3041
- 문 의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729-3912

동절기 대형 정화조 모기(유충)방제 및 소독기 · 약품지원

■ 동절기 시설물 정화조 등 모기(유충)방제

- 기 간 : 3. 1 ~ 3. 31(1개월)
- 대 상 : 대형시설(건축물) 정화조 및 집수정

※ 시설물 지하 모기(유충) 발생시는 언제든지 수정구보건소로 (☎729-3862) 신고바람.

■ 소독기 대여 및 약품지원

- 시 기 : 연 중(수시)

■ 방역소독 안내

- 수정구보건소 질병관리팀 방역담당 729-3862

상반기 '고혈압 및 당뇨교실' 운영

- 접수기간 : 2008. 2. 18 ~ 3. 14(선착순 마감)
- 대 상 : 고혈압 · 당뇨 프로그램별 각 50명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전화
- 문 의 : 수정구보건소 영양상담실 729-3859

성남시 만보걷기(3)

에너지도 절약하고 건강도 챙기는 걷기운동.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에서 만든 성남시 만보걷기 지도 중 이번 호엔 단대오거리역과 미금역 주변 코스를 소개한다.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756-9898

까치의 봄소식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면 아무때나 찾아가도 고요 속에 맞아들이는 휴식이 늘 함께해 평안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가 주는 스트레스를 벗어나려 시간이 있으면 산에 오른다.

오늘도 황송공원 약수터 숲길을 오르는데 높은 참나무 가지를 오르내리는 까치들 날갯짓 소리가 요란하다. 가만히 눈을 들어 보니, 까치 두 마리가 작은 나뭇가지를 땅 아래서 물어다가 열심히 집을 짓고 있었다. 아직은 산골짜기에 흰눈이 남아있고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데 까치들은 벌써 며칠 후면 봄의 문턱인 입춘이라는 것을 알고, 따뜻한 봄에 알에서 깨어날 새끼들을 생각하며 둥지를 만들고 있었다.

문득 희망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저렇게 애쓰며 남보다 먼저 만들어가는 노력의 결실 아닐까? 본능이래도 까치들이 벌써 알고 맞아드리는 봄소식. 나도 올봄엔 좀더 밝은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야지 가만히 나에게 약속해본다.

추운 겨울이 오면 따뜻한 봄도 머지않았다는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모진 추위 같은 절망도 참고 견디며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내가 바라는 행복은 가까이 있다는 의미를 여기에서 소중하게 생각해 본다. 아직은 잠자는 듯한 봄소식을 남보다 먼저 깨워주는 까치의 오늘 집짓는 모습, 그 삶을 향한 날갯짓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다.

장희연 | 중원구 금광2동

입으로 전하는 봄소식, 봄동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켰더니 FM에서 막 노래가 시작된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중략) …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라고 흥얼거리는 오랜 노래였다.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고 봄바람은 아른아른 불어오니, 날이 가고 달이 가는 줄도 모를 어느 여자가 불렀음직한 노래. 꽃이 피고 지는 것조차 함께 느껴주던 그의 맹세에 취하다 보니 어느새 봄이 지나갔더라는 노랫말이 사랑도, 세월도 유한(有限)함을 잘 말해준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봄볕에 반응하는 우리네 입맛은 변치 않는다. 이 계절에 어울리는 봄동은 입으로 전해주는 봄소식 중 하나다.

봄동은 배추다. 품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견디면서 잎이 공처럼 위로 모아지지 않은 채 땅에 붙어서 퍼져 자란 배추다. 생김새는 기준 미달의 배추처럼 보이지만 맛이나 영양은 그렇지 않다. 향기가 좋고 씹을수록 고소해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 좋다. 씹는 맛도 일품이다. 찬 성질이 있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고, 섬유질 · 비타민C · 칼슘 등도 풍부해 변비를 막고 미용효과도 있다.

봄동은 그냥 쌈으로 먹어도 좋다. 삶은 돼지고기와 고춧가루를 넉넉히 넣은 굴무침 등이 궁합이 맞는다. 그러나 역시 살짝 무치는 것이 뜨거운 밥에 어울린다. 봄동은 어린것이 먹기에 좋다. 크면 억세고 그만큼 바삭바삭한 맛을 느낄 수 없다.

지금 연분홍 치마를 입은 내 곁에서 절절한 맹세를 읊고 있고, 나는 봄날이 가는 줄도 모르게 봄동을 무치며 봄소식에 한껏 취해본다.

황진이가 놀던 시대에 보면 꽃놀이 나가 자리를 펴면 꽃 따고, 전 지지고, 시 읊으며 종일을 보내곤 했었다지만 21세기에는 다들 너무 바빠서 그런 멋을 부리기가 힘들어졌다. 맑은 진달래조차 구하기 어려우니, 공해에 찌든 디지털 시대에는 '풍류'란 단어가 공룡 화석처럼 아득한 옛말로 들릴 수밖에….

그저 이 도시의 삶속에서 언제나 맛볼 수 있는 봄동이 유난히 정겨운 까닭이 그것이다.

임윤빈 | 중원구 중동

봄소식 알리는 쑥 털털이

하얀 목련꽃, 개나리와 진달래꽃과 벚꽃은 우리에게 희망의 봄소식을 가지고 찾아온다. 미각으로도 전해지는 봄나물 역시 어김없이 똑같은 봄소식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바구니 옆에 끼고 작은 호미 손에 들고 앉아 냉이며 쑥을 캐는 여자들의 모습은 지금이야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풍경이 낭만이겠지만 실상은 안타깝고 서글픈 풍경이기도 했다. 겨우내 양식도 떨어지고 나무껍질까지 끓여먹던 시절에, 코끝에 전해진 알싸한 봄나물의 향기는 어지럽도록 황홀한 봄소식이었다.

나 또한 봄나물에 대한 남다른 기억이 있으니 바로 쑥에 대한 기억이다. 엄마와 할머니는 봄만 되면 어디서 캐왔는지 한 소쿠리 가득 쑥을 담아 와서는 쑥 털털이를 쪄주시고는 했다.

쑥은 주로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 자라기를 좋아했고 달래는 주로 그늘진 나무 밑이나 돌 무더기 속에서 자랐다. 냉이는 주로 양지바르고 고운 흙에서 자라기를 좋아했다. 그중에서도 한두 곳 많이 자라는 쑥 무더기를 발견하면 무슨 보물 발견한 것 마냥 가슴은 얼마나 뿌듯했던지….

일가친척이 모두 모여 사는 시골마을에 올망졸망 많기도 많은 아이들이, 갓 찌어낸 쑥 털털이 바구니에 한꺼번에 달려들 정도로 가난하기는 했다. 그래도 볕도 들지 않은 구석 자리 방에 딸린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쑥 털털이를 찌고 있으면 남부럽지 않았다. 마당을 온통 물들인 그 따뜻하고 풍요로운 향이 가장 좁은 내 집 부엌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린마음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지금도 쑥떡을 보면 "아, 봄이 오는구나" 하면서 마음으로 맞이하는 봄소식을 느껴본다. 기분이 푸근하면서 동시에 눈가에 촉촉하게 물기가 어린다. 웅심이 넣어 함께 끓인 쑥국은 또 냉이만큼이나 봄철 떨어진 입맛을 돌워주는 데 제격이었다. 오랜만에 쑥으로 그때의 봄소식을 들어나 볼까?

유일숙 | 수정구 단대동

마늘이 엄마 눈썹을 태우다

내가 여섯 살 때의 일이다. 우리 집은 시골이었던지라 농사를 짓고 야채와 과일 등을 재배하며 살았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늘을 가꾸던 우리 엄마, 가을에 마늘을 심고 겨울에는 마늘이 얼지 않도록 지푸라기로 덮어주는 작업을 했다. 물론 지금은 지푸라기 대신 비닐을 덮어주지만 말이다.

그리고 봄이 됐다. 봄이 되면 덮었던 지푸라기를 벗겨줘야 한다. 엄마는 불을 붙여 지푸라기를 벗겨내면서 각종 벌레와 세균을 죽이는 작업을 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하나 둘 지푸라기가 태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엄마도 모르는 눈 깜짝할 새에 마늘 텃밭으로 이어진 뒷산까지 불이 옮겨간 게 아닌가! 순식간에 뒷산에 불이 붙었다. 이 모든 게 엄마가 욕심을 내서 불을 좀 많이 붙이다가 일어난 사건이었다.

"불이야! 불이야! 동네 사람들, 불났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째…."

순식간에 우리 마을은 아수라장이 됐다.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물을 퍼다 나르며 다행히도 그렇게 뒷산의 불은 꺼졌다. 그날 엄마는 불을 끄려다가 눈썹까지 태우고 집에 와서 아빠한테 엄청 혼이 났다. 그때 뒷산에 큰 불이라도 났다면, 생각해도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지만 그때의 사건은 봄만 되면 생각나는, 아찔한 추억이다.

박영숙 | 중원구 금광1동

독자가 그린 숨은 그림 찾기 ❷

〈作 전기수 풍생고등학교 2년〉

별, 접시, 칼, 네잎클로버, 머그컵, 칫솔, 연필, 자, 물고기

※ 정답은 15면에 있습니다.

| 독자마당안내 |

- 다음호 수필 주제는 '선거'입니다. 매월 12일까지 원고지 5매 이내로 보내주세요.(주소 및 연락처 기재)
  숨은 그림 작품모집 : 매월 독자가 그려서 응모하는 작품으로 꾸며집니다.
- 채택된 작품은 약간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비전성남〉 편집실 729-2075~6/ snvision@cans21.net

정보나눔

보내는곳 461-700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 성남시청 공보담당관실
문의처 〈비전성남〉 편집실 | **전화** 729-2075~6 | **팩스** 729-2089 | **이메일** snvision@cans21.net / snvision@hanmail.net

성남YWCA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실
- 일시 : 2008년 3~7월(화 · 목 오전 10~12시)
- 장소 : 성남YWCA회관(남한산성유원지 입구)
- 교육대상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 신청기간 : 3.11(화)까지
- 등 록 비 : 2만원
- 접수문의 : 성남YWCA 사회환경부 701-2503

※ 모집합니다
- 한국어 담임교사= 자격은 대졸이상,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수료이상, 기독교여성
- 한국어 자원보조교사= 자격은 기독교여성, 교사경력 및 교원자격자, 열정과 책임감으로 1학기 지속봉사가능자
- 성남YWCA 701-2503

청솔노인케어센터 신규대상자 모집
- 대상 : 분당구 거주 만 65세 이상의 의사진단을 받은 경증치매 어르신
- 청솔주간보호센터 714-6333

청솔주간보호센터 자원봉사 · 후원자 모집
- 대상 : 치매노인들에게 필요한 전문자원 봉사자
- 분야 : 치료레크레이션, 원예치료, 음악치료, 작업치료 등
- 청솔주간보호센터 714-6333

미혼모 시설 무료 입소, 분만 상담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혼모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에 입소하여 무료로 분만과 산후조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sookgreen@hanmail.net
- 동방사회복지회 성남상담소 080-747-5453

산모 · 신생아 도우미 무료 교육생 모집
- 교육내용 : 출산의 이해, 산모와 신생아 감염관리, 산후조리서비스, 모유수유, 아기목욕시키기 및 맛사지, 산후운동 등
- 교육일시 : 3.17~3.28(10일간)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반명함 사진2장, 등록비 및 회원가입비 별도
- 성남YWCA 교육부 701-2501~2

어르신 베이비시터 일자리 참여자 모집
- 대상 : 관내 60세이상 어르신
- 방법 : 내방접수(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2매, 이력서)
- 기간 : 선착순 모집
- 성남시니어클럽 735-6333

창세학교 새학기 학생모집
- 성인 한글기초 및 초등학교 과정
- 중검반, 고검반, 대검반, 성인영어반(수시, 인원제한없음)
- 수강료 : 일반학원 50~30%수준(수정구청옆)
- 열린문화교실(무료) : 기타교실, 찬양교실, 원어민영어교실, 교양 한자교실, 건전한(문화,자연)관광교실, 치유상담교실
- 교육감지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창세학교 744-7004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근로의욕 증진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조건부 수급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18세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참여수당 : 1일 8,000원 × 5일 =40,000원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
- 교육일시 : 3.10~14(월~금 5일간, 매월 진행 예정)
- 교육장소 : 성남만남 사회서비스센터 교육장 (금광동58번지 : 748 - 9959/ 9904)
- 일자리 무료알선 : 청소, 경비, 장애노인할동보조원, 노인돌보미, 주방보조, 홀서빙, 생산직 등 일할 수 있는 사람 알선, 무료교육 참가자 모집
- 성남만남자활 부설 일자리지원센터 748-9959 / 9904

정보문화센터 부대시설 대관(사용) 안내
- 중앙도서관 : 시청각실(259㎡) 100석
- 분당도서관 : 시청각실(256㎡) 172석
- 여성문화회관 : 전시실(272㎡)
- 사용신청 : 사용예정일 10일 이전
- 사용금액 : 1일 3시간 기준 3만원
-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729-4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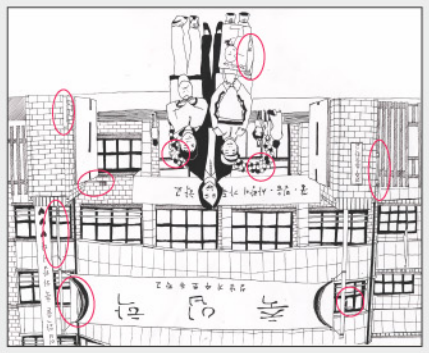
마사회 문화센터 강좌 안내
- 접수 : 2.20~2.28 / 기간중 매주 수 · 목
- 골프교실 : 문화센터 가입회원(20명)
- 파워요가 : 자원봉사 희망 주부
- 에어로빅 : 자원봉사 희망 주부
- 분당 프라자 문화센터 622-5900

여성IT 전문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 교육 : 웹디자인틀데크닉(오전 · 오후), 웹프로그래밍(오전 · 오후), 오토캐드기초(오후), 플래시MX((오후)
- 프로젝트과정 : 웹디자인, 자바
- 접수 : 2.5~2.29(선착순)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직업훈련계 8008-8141~3 http://www.ggw.or.kr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신고 · 제보
- 성남시수정구 · 중원구 ·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 성남수정경찰서 선거사범처리상황실 750-4367
- http://snsj.ggpolice.go.kr

※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 신고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최고 5억원)

전화사기 피해주의
- 경찰 · 법원 등 수사기관을 사칭, 예금보호의 명목으로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하며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
- 피해 발생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후, 경찰관서 신고



〈14면 숨은그림찾기 정답〉

수정청소년수련관 www.snyc.net

2008 청소년기자단모집
- 대상 : 시 거주 또는 재학중인 16~19세 청소년
- 접수 : 3.3~20(목)까지 방문, 팩스, 이메일로 모집

성남시청소년인터넷방송국 740-5280~1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 '토리' 회원모집
- 대상 : 시 거주 중 · 고등학교 청소년
- 접수 : 3.21(금) 선착순

청소년문화기획동아리 C.O.D.E. 회원모집
- 대상 : 시 거주 고등학교 이상 청소년
- 내용 : 청소년행사 기획 및 체험활동 등
- 접수 : 2.11일부터 모집시까지 상담을 통해 접수

대안학교 '해오름학교' 신입생 모집
- 접수 : 2.18부터 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 내용 : 테마학습활동, 문화체험, 캠프, 자치활동 등
- 수업료는 무료이며 상담 후 방문접수하면 된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별다래' 모집
- 대상 : 시 거주 14~24세 청소년 20명
- 접수 : 3.21(금)일까지 선착순
- 수정청소년수련관 740-5260~4

서현청소년수련관 www.uth.or.kr

FUN! FUN! English Story Telling
- 일시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30~11:30
- 대상 : 6~9세 20명 내외
- 참가방법 : 행사 당일 10분전까지 도서관으로 입장(선착순)

학교지원사업 「찾아가는 로봇교실」
- 대상 :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 내용 : 로봇제작 및 첨단로봇시연 체험
- 접수 : 3월~12월까지(회당 50명)
- 접수 : 선착순 공문접수(참가비 2,000원)

푸른모꼬지 DIY day[매월 셋째주 공예 프로그램]
- 일시 : 3.15(토) 14:30~16:30
- 내용 : POP공예 '나만의 시간표 만들기'
- 참가대상 : 초등3~중학생 및 가족/ 20가족
- 접수 : 2.5(화) 09:00~ 선착순(3천원)

모꼬지 역사기행[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떠나는 시대순 역사기행]
- 일시 : 3.22(토)일 09:00~18:00
- 대상 : 청소년(초등 3~6학년)/ 35명
- 내용 :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전곡리선사유적지/ 고인돌공원 등)
- 접수 : 2.23(토)~3.29(금)까지

※가족증빙서류 필히 지참(참가비 : 25,000원)
- 서현청소년수련관 781-6184

개인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 대상 : 정서장애 및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아동, 산만하고 공격적인 아동
  위축되고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
- 미술치료 운영시간 : 매주 화~토 13:00-18:00
- 치 료 비 : 1회당 30,000원(예약 031-781-6157)
- 치료시간 : 주 1회 40분/ 치료 후 부모상담
- 서현청소년수련관 781-6157

2008년 3월 시민정보화 무료 교육 안내

기 관 명	구 분	자격	교육기간	인원	접수일/접수처	전화번호
수정구청	파워포인트	성남시민	3.3 ~ 3.14	22	2008.2.15 ~ 마감시까지 전산통신팀(4층)	729-5075
	포토샵		3.3 ~ 3.14	22		
	플래시		3.3 ~ 3.14	22		
	한글		3.17 ~ 3.28	22		
	인터넷기초		3.17 ~ 3.28	22		
	엑셀		3.17 ~ 3.28	22		
수정도서관	엑셀	성남시민	3.4 ~ 3.27	30	2008.2.26~2.28 (선착순) 방문, 홈페이지 접수	743-9600
	나모웹에디터		3.4 ~ 3.27	30		
	인터넷 활용		3.4 ~ 3.27	30		
	직장인 한글2004		3.8 ~ 3.29	20		

기 관 명	구 분	자격	교육기간	인원	접수일/접수처	전화번호
중원도서관	엑셀(기초)	성남시민	3.4 ~ 3.27	30	2008.2.26~2.28 (인터넷 선착순 접수) www.snjungwonlib.or.kr	정보봉사팀 752-3916
	뉴실버세대를 위한 인터넷 활용		3.4 ~ 3.27	30		
	플래시 애니메이션		3.4 ~ 3.27	30		
	직장인을 위한 MS-Word	성남시 직장인	3.8 ~ 3.29	30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PC활용기초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3개월(월,수,금)	40	수시모집	732-6884
	엑셀자격증반		3개월(월,수,금)	24		
	워드자격증반		3개월(월,수,금)	24		
	인터넷		3개월(화,목)	24		
	파워포인트		3개월(화,목)	24		
	웹디자인 교육		4개월(월,수,금)	24		

※ 통 · 반장님! 〈비전성남〉 배부에 늘 감사드립니다.

"봄노래 잔치마당"

성남시립국악단 제12회 정기연주회

100만 성남시민의 정서함양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창단한 성남시립국악단은 정기연주회를 통해 시민 문화향수의 기회를 갖고, 문화도시 성남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 프로그램

【제1부】
- 국악관현악곡 "질마재의 노래"
- 남도민요 메들리 "봄노래, 메아리, 꽃피는 새동산"
- 경기민요 메들리(사철가, 양류가, 양산도, 밀양아리랑)
- 서도민요 메들리(느리개 타령, 금다라 꿈, 배치기, 자진배치기)
- 저대와 국악관현악(초현)

【제2부】
- 국악가요(아버지, 찔레꽃, 국밥집에서) …… 소리 장사익
- 가요(광야, 애모, 남향열차) …… 노래 김수희
- 국악관현악곡 "도약"

그중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보듬어 줄 몇 곡을 소개해 본다.

국악관현악곡 "질마재의 노래" '질마재'는 미당 서정주 시인이 어린시절 살던 변산 어디쯤의 고향마을이다. 여러 장단을 오가고 조성을 변조해 가며 서정적이면서도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향이 주는 자유로운 느낌처럼 곡에서도 형식에 묶이지 않은 평온한 느낌이 강조되어 시를 읊듯이 연주된다.

장사익(아버지, 찔레꽃, 국밥집에서) 장사익의 보컬은 국악의 피를 이어받았으면서도 의도적인 틀 속에 갇혀 있지 않다. 인생을 다 살아 버린 듯한 달관과 옥타브를 무시하며 오르내리는 웅혼한 광기가 겹쳐져 있다. 하늘도 울어 버릴 듯한 그의 한 서린 목소리를 성남 시립국악단의 연주와 함께 들어볼 수 있다.

김수희(광야, 애모 ,남행열차) 대한민국 국민 중 그의 히트곡 '남행열차'와 '애모'를 한번쯤 흥얼거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중·장년층으로부터 끊임없이 인기를 누리는 김수희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는 봄의 생동하는 기운을 끌어낸다.

시립국악단의 봄노래를 통해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성남시립국악단 729-4810
장영희 기자 essay45@hanmail.net

▶ 일 시 : 2008. 3. 5(수)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관람료 : 전석 10,000원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Happy Wedding Song

3~12월 분당구어머니합창단 결혼식 축가 봉사

분당구어머니합창단(단장 김영희)이 결혼식장 축가 공연자리에 선다.

이는 분당구가 주최하는 주민을 찾아가는 연주회 일환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분당구 거주자이며 관내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의 신청을 받아 일생에 한번뿐인 행복한 결혼식을 위해 축가를 불러줄 계획이다.

특히 이번 Happy Wedding Song에 참여하는 분당구어머니합창단은 지난 1995년 창단 후 60여회의 정기 및 초청연주회를 치른 실력있는 아마추어 단체다. 지난 2004년 독일 브레멘 세계합창올림픽 은메달 수상에 이어 2006년 중국 셔먼 세계합창올림픽 동메달 수상, 2007 제1회 경기도 행주 합창페스티벌 대회 대상 수상, 부산국제합창제 금메달 수상 등 우리나라 정상급 합창단으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당구어머니합창단은 "결혼식 축가공연뿐 아니라 문화공연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뜻있는 단원들과 함께 사회 봉사활동도 참여할 계획이다. 결혼식 축가 서비스는 무료이며, 팩스 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문화관광팀 729-7272

로맨틱♥코메디 뮤지컬

김종욱 찾기!

- 일 시 : 2008.3.29(토) 오후 4시, 7시
  2008.3.30(일) 오후 3시, 6시 (총4회)
- 장 소 : 성남시민회관 대극장
- 관 람 료 : R석 3만원, S석 2만5천원
-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 출 연 진 : 성두섭, 안유진, 임기홍
- 공연시간 : 120분(휴식시간 없음)
- 예 매 : 티켓링크 1588-7890 성남문화재단 031-783-8000
- 할 인 : 회원할인, 조기예매 2.29(금) 이전 예매 10% 할인, 학생할인(대학생 포함) 15%, 65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50%,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 소지자 15%(4매 한정)